



선거의 추억



새 학년 새 학기 우리 아이들 학교도 선거철이다. 선거 출마 선언과 함께 준비에 한창인 딸을 바라보며 잠시 어릴 적 추억에 잠겨본다. 나도 초등학교 시절 매년 반장 선거에 출마했었다. 그 시작은 2학년 때 뜻밖에 부반장으로 당선되면서부터였다. 1학년 2학기 때 전학 와서 아는 친구도 몇 명 없었던 터라 당연히 조금의 기대도 없었다. 그래서 나 자신조차도 소중한 표를 다른 친구에게 가까이 투표했는데 생각보다 내 이름이 많이 호명되었고 덜컥 부반장이 되었다. 그때 선생님은 반장과 남녀 부반장들에게 분필을 쥐어주며 떠들거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때부터 알게 되었나 보다. 감투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애초에 반장은 꿈꾸지 않았다. 첫 시작이 부반장이기도 했지만 반장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반장은 반에서 성적으로 1, 2등 하는 모범적이고 압전한 친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나는 목소리가 컸고 나서기 좋아했고 말 하나는 제법 잘하는 편이라 부반장 노릇을 하기에 적격이었다. “반장 나와!” 수시로 선생님께 불러 다니고 시시때때로 아이들의 원망과 미움까지 받게 되는 반장의 자리보다 부반장이 마음에 쏙 들었다. 떠드는 아이들 이름을 적을 수 있을 정도의 권력. 그걸로 딱 좋았다.

3학년, 4학년 때도 무난히 부반장에 당선되었다. 그런데 5학년에 들어서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은 그리 어렵지 않게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만 떨어진 것이다. 아슬아슬한 결과도 아닌 형편없이 뒤진 표 차이였다. 며칠간 아니 꽤 오래 진지하게 고민에 빠져있다. 아…… 내가 이토록 민심을

잃었던가…… 그리고 보니 2, 3, 4학년 학급 임원으로 집권하며 가차없이 떠드는 친구들 이름을 적어대고 큰소리를 친 것이 마음에 걸렸다.

5학년 선거의 설욕을 갖기 위해 6학년 때는 새 학년이 되자마자 부반장으로 나설 준비를 했다. 무조건 1학기 때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친구들에게도 늘 웃는 낯으로 대했다. 여자 부반장 후보로 나설 아이가 나 말고도 여럿 있었는데 그 중 A가 마음에 걸렸다. 나처럼 부반장 후보로 자주 입후보하는 아이였고 성격도 꽤 비슷해서 나와 죽이 잘 맞는 반면 잘 부딪히기도 하는 친구였다. 이 친구와 나란히 후보로 올라가면 표가 분산되어 엉뚱하게 제삼자가 당선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불안했다. 이제 마지막인데…… 5학년 때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는데 또 그렇게 될 순 없었다. 그때 그 쓰라린 패배를 생각하니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를 것만 같았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집에서는 내가 출마하는지조차 몰랐지만 내 마음은 그랬다.

나는 또 떨어질 수 없었다. 뭔가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그 친구를 조용히 불러 화장실로 갔다. “A야, 우리 표를 모으자. 여자 모두 힘을 합쳐서 B를 반장으로 뽑고 1학기 부반장으로는 나를, 2학기 부반장으로는 너를 뽑도록 하자.” 우리가 표를 모으지 않고 흩어지면 결국 반장을 남자한테 뽑히고 부반장도 우리 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요지였고 그 친구는 선뜻 동의했다. 그날 선거 결과는 나의 계획대로 여학생 전원이 B를 반장으로, 나를 부반장으로 뽑았다. 내가 A를 설득하고 우리 두 명이 여자 아이들

을 선동해서 이룬 쾌거였다. 이제 나는 욕심나는 감투도 없고 오히려 타이틀이 거주장스럽고 귀찮은 중년 아줌마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랬다. 60명의 아이들 중 세 명만 갖게 된다는 학급 임원의 감투가 세상의 전부이고 그랬다.

입후보 소견문 작성 중이던 딸에게 “친구들이 너를 뽑아야만 하는 너만의 장점이 뭐야?” 하고 물었다. 올해 5학년이 된 딸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난 착해.” 그러며 환하게 웃는다. 맞다. 우리 딸 착한 것은 엄마인 내가 보증하고 말고. 딸의 눈부신 미소가 부럽다.

선거 중 제일 유쾌한 선거는 초등학교 선거이다. 이제 곧 2021년 재보궐선거인데 실제 선거판은 전혀 재미있지 않고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하니 이것 참 유감이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 새집 분양, 엘바인 및레이크포레스드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풀리톤 단층 하우스	요바린다 타운홈/콘도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풀리톤 타운홈/콘도
방 3 화 3 1,562sf 대지 6,500sf \$550,000	방 3 화 3 2019년생 1,669sf 3층구조 \$730,000	방 3, 화 2 1,505sf 대지 6,320sf \$690,000	방 1 화 1 700sf \$29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요바린다 단층 하우스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방 3 화 1 1,100sf 넓은 대지 6,100sf \$590,000	방 3 화 2 1,540 sf 대지 6,000sf 완전 리모델링 한집 turn key \$690,000	방 2 화 2 1,056sf 대지 5,000sf 1984년생 \$540,000	방 3 화 3 1,496sf 대지 5,150sf 한인 상권 가까운 곳 위치 \$59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풀리톤 단층 하우스	풀리톤 단층 하우스	풀리톤 타운홈/콘도
방 3 화 2 1,583sf 대지 6,000sf 은행교회 아리랑마켓 가까운 곳 \$590,000	방 3 화 2 1,537sf 넓은 대지 7,000sf 좋은 학교 \$610,000	전체 리모델 방 5 화 2 1,665sf 대지 7,500sf 새 부엌, 새 appliances move in ready \$690,000	방 2 화 3 1,362sf 완전 리모델링한집 트로이고등학교 도보거리 \$540,000
엘바인 타운홈/콘도	엘바인 콘도	엘바인 콘도	엘바인 타운홈
방 2 화 3 새 마루 새페인트 1,460sf West Irvine \$650,000	2006년생 1,052sf 방 2 화 2 일층 위치 fully furnished \$520,000	방 3 화 4 1,590sf 2020년생 포돌라 Brisa \$728,000	2002년생 방 3 화3 1868sf 낮은 HOA 게이트 단지 \$789,000
*부에나팍 새집 분양	*브레아 새집 분양	*위티어 새집 분양	라미라다 시니어 단지
3층 구조 *교통과 위치 좋은 곳 1. 방 2 화 2.5 1,250sf \$500,000 부터 2. 방 3 화 3 1,500sf \$550,000 부터	3층 구조 2,253sf 방 3개 부터 방 5개까지 탁트인 오픈 플로워 플랜* 학교 좋은 지역 \$690,000~	2층 또는 3층 방1~방4 구조 900sf 부터 1,950sf까지 최신 시설 커뮤니티 센터 (피트니스, 수영장 등등)	방 1,2,3 (55세 이상) 24시간 가드 상주 넓은 게이트 단지 한국 마켓 가까운 곳 위치 \$290,000~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949.501.8555
Irvine: 8 Corporate Park #220